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오늘 개막

5일간의 일정 돌입

전북식품명인대전

음식문화대전과 연계

지역 콘텐츠 진흥

프로그램 강화가 특징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오늘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5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들의 수준을 높이고 각 시군 특화사업단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식품명인대전과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연계 개최하며 지역 콘텐츠 진흥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총 24개국 36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식품미관, 선도식품관, 상생식품관, 수산발효전 총 4개의 국내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총 30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들이 출품한다.

글로벌식품미관에서는 14개국 44개사의 해외기업들이 참여하여 와인, 치즈, 맥주, 라즈베리 식초 등 각 대륙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조지아, 베트남 특별전을 비롯해 다양한 부스 이벤트가 진행되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대한민국 대표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오늘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발효식품엑스포 해외기업관.

농식품 기관들이 참여하여 정책홍보, 연구성과 소개와 역대 우수상품 특별전시, 2019 IFFE 쇼케이스를 통해 농식품산업 전반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BT특화상품, 도지사인증상품, 6차 산업 인증기업상품, 로컬푸드 상품 등으로 구성된 선도식품관에서는 현재와 앞으로의 식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통발효식품 생산업체와 소상공인협동조합 두레마켓으로 구성된 상생식품관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수산발효전은 곰소, 군산, 강경, 속초의 다양한 것감을 만나볼 수 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전문 유통 바이어 초청 B2B 무역상담회와 발효의 우수성과 가치를 나누는 학술대회 국제컨퍼런스, 기술 거래 심포지엄 등 행사 기간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주요 인사, 해외대사관 상무관 등이 행사장을 찾아 우수 발효식품 발굴과 무역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효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식생활네트워크와 연계한 아이들의 올바른 식문화 교육부터 내 손으로 만드는 김치 담그기, 치즈만들기, 우리밀수제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 행사와 비눗방울 놀이, 길바닥 스케치북 등으로 구성된 'IFFE 놀이터'와 더불어 퀴즈, 스탬프 투어, 인증샷,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또한, 비빔밥, 입실치즈피자 등 지역 특화 음식을 비롯해 베트남쌀국수, 머랭쿠키, 큐브스테이크 등 동서양의 다양한 발효 음식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엑스포 행사 동시에 연계하여 개최

하는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은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의 다양한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체험하며,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 및 명사초청 쿠킹 클래스 등으로 구성되어 전라북도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엑스포와의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동수 원장(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참가객, 기업, 바이어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장에 직접 방문해 우리 고유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다양한 발효식품도 맛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 발효식품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경진원,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기업 설명회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0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과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는 계속 고용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직업능력 배양,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기업체 및 청년근로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기업뿐 아니라 도내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우수 중소기업, 농생명식품기업, IT/콘텐츠기업, 탄소/신소재/바이오 등 분야를 우선 선발하고, 선정된 대상기업과 매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인건비 및 교육,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업안내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tba.kr) 및 전화(063-280-4771)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NH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30일 오픈뱅킹 시행에 발맞추어 농협은행 디지털 플랫폼에서 타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NH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1570만명(전북 69만명)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 통합 플랫폼인 NH스마트뱅킹 앱(이하 NH스마트뱅킹)과 농협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나섰다. 비대면 채널 3단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NH스마트뱅킹 앱에서 30일부터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비롯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10월 19일에는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정된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션뱅킹',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바로 계좌 조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젯' 서비스 등을 신규 도입했다.

2단계로 NH스마트뱅킹 고도화를 진행해 영여 등 9개 국어서비스를 지원하며, 통장 없이 스마트폰으로 출금이 가능한 청구출금 서비스와 연락처 송금 서비스 등 고객들의 편의성을 강화한 서비스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3단계로 간편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도 11월 29일부터 NH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해 타행 계좌 50만원 이하 무료 송금과 '환전 90% 우대 서비스' 등의 특화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기금의 대안적 투자 방향 모색

국민연금공단, 내달 7일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사옥 1층 온누리홀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대안적 투자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2019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위험관리 및 사회적 역할 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 평가사인 서스테넬리티티스 CEO 마이클 잔츠(Michael Jantz), 미국 코네티컷 주 그리니치를 대표하는 헤지펀드사인 엘리트 매니지먼트 그룹 공동 CIO 그레고리 발리(Gregory Valli), APG(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 아시아 책임투자(ESG) 담당 박유경 이사, 중국 칭화대학교 IIICT의 창글린(Changle Lin) 부국장, 국민연금연구

원 이석훈 박사 등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각 세션별 주제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망, 아태지역 연기금의 대체투자 최근 동향,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역할 등이며, 마지막 패널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의 올바른 대안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용하 국민연금 연구원장은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대안적 투자를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 및 개선 방안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에 있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1일까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공식 사전등록 홈페이지(http://forms.gle/5Nxf9PR6uyAx7n8)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전력산업 잡페어와 병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29일,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두산퓨얼셀 유수경 대표이사 등 전력산업관계자 4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19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내 전력산업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력산업인들 간 협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과 환경에 기반한 미래에너지 기술'을 주제로 한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석대학교 이흥기 교수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 안전동향' 등 모두 7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주제 발표에 앞서 열린 유공자 포상 행사에서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남동방

전 삼천포발전본부 정성권 차장 등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주)지스롭 김미용 부장 등 12명이 공사 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고, 두산중공업 이홍수 상무에게 공사 감사패가 수여됐다.

조성완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전력설비의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원주군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전력산업 잡페어'도 부대행사로 마련했다. 전력산업 잡페어에는 원주군, 5대 발전사, 민간발전사 등 16개의 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해, 전력산업계 취업희망자 300여 명에게 생생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윤상 기자

LH 전북본부, 군산신역세권지구 토지 공급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3필지(432~745㎡),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51필지(245~295㎡)와 주거건물 단독주택용지 62필지(219~448㎡)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근생용지가 3억9200만~7억4500만원, 점포겸용은 1억5300만~1억9800만원, 주거건물은 9500만~1억9300만원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320만2000원,

219만5000원과 145만4000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근생용지, 점포겸용)과 추첨(주거건물)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1월 18~21일 진행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정해진다. 단독주택용지(주거건물)는 인터넷 추첨으로 결정된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 가치·국민 참여 확산

농진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늘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청장을 비롯해 내외부 전문가, 주부·대학생·블로그기자로 구성된 국민심사단 20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의 정책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강조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대회는 국민이 행사에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정책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극, 동영상 등 다양한 발표 기법을 활용하고, 과제별 성과물 전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사례는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거나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대표 혁신과제로, 우수사례는 농약관리로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드론 활용 맞춤형 정보생산 및 협업체계 구축 △국민 참여 개발 비 품종 '해들'로 일본품종 완전 대체 △민간 협력 고온극복혁신형 스마트온실 설치 △환경과 소비자 를 배려하는 저비용 한우고기 생산 기술 개발 △리빙랩 방식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총 6개 과제이다.

이 과제들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분청과 4개 소속기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출한 17개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은 사전 심사(1차)와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의 현장 심사(2차)를 합산,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한다. /김윤상 기자

부인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p.co.kr

부인수협이 모든 수산물 제품은 **100% 국산** 만을 사용합니다.

특허받은 뽕잎기술! **뽕잎간고등어**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혀없는 뽕잎간고등어!

조합장 송 광 복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식품제조업체 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획득!

부인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p.co.kr

뽕잎간고등어 공정

전국택배판매 063-584-3101~2